

## 사회병리와 정신치료

신문을 펴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는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서 만성화된 무  
거운 어두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또 새삼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눈  
앞에 펼쳐진다. 가히 새로운 소식들이다.

전에 없던 화갈, 일본갈들이 번득이고  
사람의 심신을 망그러뜨리는 마약사건들  
이나 인신매매나 가정과피범등의 사건이  
줄비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통계수치가  
잘됐는지는 몰라도 세계제일의 자살율이  
다. (10만명당 15.1) 10대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자살을 하고 있다.  
정말 「죽기 살기」의 극한으로 치닫는다.

옛날 신문에 ‘도둑이 쌀한가마를 훔쳐  
서 지고 달아나다 순경에 붙들렸다더라’  
는 기사는 차라리 ‘타향살이’ ‘고향초’  
등의 유행가와 함께 옛날 가난하던 시절  
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기사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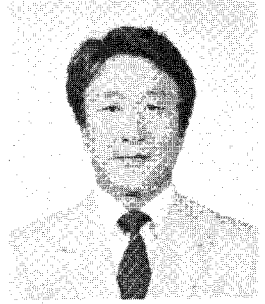
‘한탕주의’ ‘막차’ ‘씩쓸이’ 등 단어  
들도 십수년래 어색하지 않게 들리게 되  
어 버렸고 화염병도 한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한 시대를 충격적으로 기억하기  
에 충분한 불꽃이었다. 노사문제도 극한  
으로 치달았고 사방에서 대극(大極)을  
이루었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엇그제 미국에서  
생겼던 사건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

고 일본제 컴퓨터칩은 우리가 곧 따라잡  
기까지 되었다. 우리 필로폰이 미국으  
로 건너가고 미국의 코카인이 우리나라  
에 상륙하였다. 미국, 일본의 황금만능  
주의의 물을 받아 물질지상주의가 팽배하  
고 출세주의나 무자비한 물질경쟁이 우  
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10년~20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다.

효(孝)와 인(仁)으로 자식을 교육사  
키고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해서  
는 씨가 잘 먹혀들지 않게 되었고 반에  
서 몇등 했느냐, 100점 받아라 해야 하  
고 아이는 컴퓨터를 사내라고 아우성이  
다. 메이커 있는 신발, 옷을 사내라 하  
고 없어 못사주면 더러는 부러운 나머지  
학교근방에서 애들 것을 뺏어 입고 신어  
본다.

부모가 돈벌러 나가고 애는 집에 있게  
되면 심심해지고 적막해진다. 나가 놀 곳  
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돈을 훔쳐서라도  
나가 무엇이나 사먹고 애들 사주고 집에  
와서는 야단맞고 공부도 안되면 세상사  
는 맛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어려서부  
터 어떻게 해야할 지 갈길을 모르다가 끼  
리끼리 모여 본드를 맏고 환각상태에 빠  
지기도 한다.



文 洪 世

이대의대외래교수 · 문신경정신과의원장

공부잘하는 아이들끼리만 놀고 자기도 한번쯤은 끼어볼까 하다가 퇴짜맞는지 스스로 탈락해서는 할일이 없다. 숙제 안했다고 부모나 선생에게 야단이나 맞고는 칠판글씨도 안들어오고 대상을 잃고 명하니 창밖만 내다보다가 시멘트빌딩숲 속을 터벅터벅 걷는다.

화가 많은 애는 온종일 부시럭거리고 애들을 건드리고 도무지 침착해지지 않는다. 이상(李箱)의 글 「한아가가 뛰면 둘째~7째 아이도 뛰고 한아가가 똥을 누면~7째아이도 따라서 똥을 누는」 뽀시락대는 애들이 할 일이 없다.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멀건히 책상에 앉아 제약속에서 뿌연 잠냄속에 빠진다. 중3짜리가 「형이 포르노 만화책 빌려오라고, 심부름 몇번하다가 학교공부는 안되고 연합고시 쳐야 할텐데 내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아이는 「새엄마는 우리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엄마한테 가면 새엄마한테 가라고, 돈 훔친 것 가지고 새엄마가 고아원에 넣겠다고-」 또 어떤애는 「엄마는 뭐라고만 하면 얼마나」 한단다.

마음의 정처를 떠나 떠있고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한면을 그려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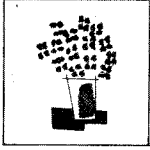
어느 부모인들 자식 잘 키워보고 싶지

않은 이가 없겠지만 먹고 살다 보니, 시집살이 하다 보니, 돈벌러 외국에 갔다와 보니, 아파트하나 마련하려고 예미도 돈벌러 나가다보니 애가 어느새 담넘어 나가 있거나 말을 귀담지않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엄마는 고스톱이나 치고 나더러는 공부하라고 하고 아빠는 술잡숫고 소리 지르면서 공부하란다. 매일 자기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나더러는 공부하라고」 나도 '네' 하고 공부하는 척하면 그만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자기들은 그래놓고도 좋아하겠지 누구 좋으라고 공부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지 그렇게 터놓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권위를 잃어가고 아이들은 부모다운 부모없이 커간다. 중등에 나가서 7-8년간 돈벌어 회사를 차린 사장은 회사직원들에게는 「고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저항에 부딪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가며 권력의 비호하에 성장한 악덕 기업주」라는 아들의 추궁에 어처구니없고 야속해진다. 교수가 식발당하고 교수가 학생들 비위맞추며 성적을 주

# 의학 에세이



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간다.

미국에는 건강한 아버지상(像)이란 오로지 대통령, 대법관이며 이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감시하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강요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건전한 아버지가 적거나 실추당한 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이고 일본의 정치가들은 다 돈과 술수만 횡행하지 건강한 부상(父像)을 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니까 젊은 세대는 비판이나 하는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는 정치가는 도물고 「홍보면서 닳기」로 「윗물이 맑아야…」 하면서 「내죄는 작다」가 되어버린다.

홍악범이라는 것도 규정나름이었으나 초자아결손(超自我缺損)이 있으면 즉 살인을 하고도 전혀 양심이라는게 없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말은 무성해서 말로서 말을 막고 말로 치고 받다가 살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결과로 유도한다. 초자아는 건강한 아버지상이 마음속에서 작용하여 생기는 윤리, 도덕관 내지 이상향을 그리게 하는 정신구조인데 이구조에 결손이 생기면 정의감도 건전함도 상실하게 되는데 만연되면 온세상이 다 부패한다.

과렴치한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옹케 성장하기도 하나 아주 힘들다. 불같은 성미의 아들이 불을 지르기 쉽다. 자살을 하는 가족이 내를 이어 자살하는 경향이 높다.

부모는 돈버는 욕심에 허둥거린다. 애는 학교성적이 바닥쪽이면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위험수위에 서있다. 기를 쓰다 허물어지면 재기할 탄력을 잃고 포기상태가 된다. 어차피 희망없으면 규범을 넘어선다.

약만 남게 되고 내친김에 극한으로 치닫거나 종교속으로 도피한다. 적개심이 밖으로 뻗치면 자기이외의 대상을 해(害)하고 안으로 뻗치면 여리가지로 자기를 해친다. 지나친 남의 탓이나 지나친 자기탓도 병이다. 양극은 어떤 형태이건 병이고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는 아집(我執)은 병중의 병이다. 현대어로는 커뮤니케이션장애이다.

## 유교는 예방정신의학 사회운동

본래의 동양의 정신적 전통은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유학(儒學)을 성학(聖學)이라 하고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 유교의 이상이고 목표이다. 성자(聖字)



는 이(耳)와 구(口)의 왕(王)이고 귀와 입이 '통한다'는 뜻이고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통해서 먼저 안다(無所不通, 通而先識). 맹자는 인격이 최고로 성숙해서 만민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 성인(聖人)이라 한다. 순(舜)임금을 천고의 성인의 모범으로 숭상하고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에 합일하면 순임금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순임금이 자신을 공경히 해서 무위(無爲)로 다스린다고 했다.

인은 사랑이며 건전한 관계의 수립이다. 인은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생명의 씨앗이다.

인의 실천은 효제(孝弟)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에 확충한다. 친자관계를 바로하고 가족관계를 정상화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해서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克己復禮爲仁).

따라서 유교는 예방정신의학이며 정신건강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심상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유교의 정신을 일깨워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재확인해 나갈 때 현대사회의 병리를 바로잡는 지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동식(李東

植)선생은 유교의 기본이 인욕(人慾)을 제거하여 무욕(無慾)에 이르면 중용(中庸)이 되고 그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은 불교의 집착을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과 노장(老莊)의 유위(有爲)를 떠나 무위진인(無爲真人)이 되는 것, 정신분석에서 주동기 또는 핵심감정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과 인간주의 심리학에서는 결핍동기에서 해방되면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말이 다를뿐 실체는 같다고 하면서 단지 그 목표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기수행의 정도가 다르고, 서양의 정신치료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로 다루나 도에서는 긍정적인 힘을 키우는데 더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동양의 도로 사회병리 치료

인간관계가 사랑과 믿음위에서 관계가 형성될 때, 인격과 인격끼리 만날 때, 어른은 어른답게 될 때, 끝없이 수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부족한 사람에게 채울 수 있는 힘을 주고 교만한 사람을 깨우쳐 줄 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동양의 도가 병적사회를 치유할 최선이다. 卍